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봄

2010년 26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0년 제26호 봄

시론

3. 정관을 개정하며
|김종렬(14회)| 부회장

동문회소식

4. 회장단 회의 및 기타 회의
5. 전국 약사회장 및 분회장 프로필
6. 2010년도 학위수여식 및 수상자 명단
8. 2010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동기별 소식

11. 28회 동기회

지부별 소식

12. 파주지부
|권창호(19회)| 지부장

동기회 소식

14. 4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16. 별난 동문 이야기
|신순옥(39회)| 변호사
18. 만평
|김기명(18회)| 부회장
19. 약국도움이야기
|장원규(28회)| 동문

문학산책

22. 장미넝쿨에 비는 내리고
|정영기(10회)| 동문
24. 중영시선
|허인회(4회)| 교수
25. 회원동정
27. 발전기금 조성내역
32. 편집후기

정관을 개정하며

2009년 5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 총회에서 10회 유정사 회장의 임기 만료로 다음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동문회장을 1회에서 5회 선배님들께서 11대에 걸쳐서 역임하셨고, 6회부터는 2년 임기를 순차적으로 맡아 10회까지 내려왔으나, 동문들의 졸업회수가 늘어나 정체됨에 따라서 차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3개 기를 하나로 묶어서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따라서 11회 동문까지는 종전대로



김종렬(14회) 부회장

하고 그다음부터는 3개기로 묶어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11회 동문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2, 13, 14회 동문 중에서 17대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나 12, 13회 선배들께서 사의를 표명하여 14회 윤대봉 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한꺼번에 3개 기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결과라 임원 및 회장단이 그만큼 젊어져서 생동감은 있었지만 친근감이 줄어들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동문회 기수가 매년 늘어나고 동문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하여 종전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임 윤대봉 회장이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정관은 본회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 그리고 모교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관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역대회장들께서 역임하셨던 회기동안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였으나 이번에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게 범위를 넓혀서 보완, 수정하였다. 여러 차례 모여서 종전의 정관을 검토하며 서로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나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 3개 기씩 묶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세대교체가 너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회장보다 위의 선배들은 동문회 참여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에 소원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3개 기로 묶어서 회장을 선출하되 회장에 선출된 기수를 제외한 다음 기수를 셋으로 묶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상임이사회를 윤리, 편집, 섭외, 홍보, 체육, 학술, 병원약사, 제약경영, ROTC, 공직약사위원회로 10개 위원회를 두어 활발한 회무에 중점을 두었다.

회장단은 졸업 20주년 행사를 치른 동문들을 포함하여 각

기별 2명씩 추천토록 하였고, 회장의 동기는 회장을 적극 보필한다는 뜻을 고려하여 4명의 부회장을 추천토록 배려하였다. 여약사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한다.

각종 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총회로써 주요 현안은 회장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였고,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를 득한 후에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사 선임은 각 기에서 10명 이내로 추천토록 하였다.

동문회 조직은 분회, 지부, 본회로 구성되며 분회는 회원 10인 이상(시, 군, 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단 회의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고, 지부는 본회가 연합하여 지부(특별시, 광역시, 도)를 결성하고, 본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윤리규정으로는 포상제도와 징계제도로 구분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명예를 빛나게 한 회원에게는 포상토록 하였으며, 징계는 회칙을 위반한 자, 명예를 훼손한 자, 이사회, 회장단 회의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자, 특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경고·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역할은 대외적인 중요사안과 본회 및 모교 발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약사회 회장의 단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동문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과 같이 정관개정한 중요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언급해보았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발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면 규정에 반발하곤 하던 사태들을 우리는 지켜보아 왔었다. 타 동문들에게는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동문간의 경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득이 될지 몰라도 동문회 전체에는 이롭지 않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선이 아닌 악이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엄정한 기준으로 동문끼리의 경쟁을 심의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회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단결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4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12월 18일 오후 7시
- 안건심의 1. 제 39 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평가의 건
2. 내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의 건
- 기타토의 사항 : 의약품유통 정보화 사업의 건



약학대학 교수초청 간담회

- 일 시 : 2월 16일 오후 7시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

- 일 시 : 1월 29일 오후 7시



여동문회의

- 일 시 : 4월 9일 오전 12시
- 안건 1. 전국여동문임원 축하 및 격려의 건
2. 여동문의 날 개최 준비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제5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3월 18일 오후 7시
- 안건심의 1. 회칙개정건의 건
2. 최종이사회 준비의 건



감사 수감

- 일 시 : 4월 22일 오후 6시



신년교례회

- 일 시 : 1월 7일 오후 7시



전지 최종이사회

- 일 시 : 4월 25일 오전 8시

중앙대 약대 출신 지부장 및 분회장 프로필

지부장



대한약사회장
김 구(12회)



경기지부장
김현태(20회)



대전지부장
홍종오(21회)



충남지부장
전일수(22회)



경남지부장
이원일(27회)

분회장

서울 노원구 분회장 김성지(17회)
 서울 은평구 분회장 전광우(18회)
 서울 관악구 분회장 윤건섭(19회)
 서울 강북구 분회장 하충열(23회)
 서울 강남구 분회장 황규진(24회)
 서울 강서구 분회장 최두주(25회)
 서울 마포구 분회장 양덕숙(28회)
 서울 종로구 분회장 이병천(28회)
 서울 광진구 분회장 현상배(29회)
 부산 북 구 분회장 김상현(24회)
 부산 기장군 분회장 윤영식(31회)
 인천 연수구 분회장 김민영(23회)
 인천 부평구 분회장 최병원(30회)
 인천 계양구 분회장 김용구(36회)
 경기 양평군 분회장 김홍식(2회)
 경기 포천시 분회장 김명수(14회)
 경기 안성시 분회장 이규홍(22회)
 경기 고양시 분회장 함삼균(24회)
 경기 하남시 분회장 이현수(25회)

경기 수원시 분회장 김영후(26회)
 경기 여주군 분회장 장영배(26회)
 경기 안산시 분회장 오홍철(27회)
 경기 구리시 분회장 최용철(28회)
 경기 부천시 분회장 한일룡(29회)
 경기 안양시 분회장 손병로(29회)
 경기 용인시 분회장 김광식(30회)
 강원 고성군 분회장 남운수(19회)
 강원 홍천군 분회장 김동학(21회)
 강원 양구군 분회장 민장식(22회)
 강원 양양군 분회장 이채권(26회)
 충남 부여군 분회장 이희영(14회)
 충남 논산시 분회장 박정래(26회)
 충남 홍성군 분회장 윤광중(26회)
 전북 완주군 분회장 김태성(17회)
 경북 고령군 분회장 조무원(16회)
 경남 밀양시 분회장 정교현(26회)
 경남 산청군 분회장 김상범(28회)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

2009학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18일 오후 2시 학생회관 3층 루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는 약학전공 50명, 제약학전공 5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윤대봉 회장, 김대경 학장을 비롯 명예교수, 재임교수 및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윤대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덕택으로 사회가 발전했고 국가가 융성해 왔으며, 문명 또한 성장해 온 것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아닌가 감히 반문해 봅니다.” 라고 격려했다. 한편 김대경 학장과 재임교수들은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나눠주며 격려와 함께 아쉬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제54회 졸업생 명단

윤상준 장재영 강다정 신수임 이재홍 강민형 강현민
고명수 고은지 김남곤 김다영 김미림 김영화 김용호
김유준 김정호 김주영 김한나 남지운 노의현 노현수
박규호 박미영 박민영 박승범 박신정 박 웅 방준석
서정홍 성철훈 신훈정 안기현 양다해 원혜연 윤지은
이윤정 이종국 이종철 장지민 전찬오 정재민 정지혜
정혜영 조수진 조혜연 주민재 최강인 황지혜 황혜성
전광옥 (이상 약학전공 50명)

문가윤 이영찬 김선호 공성현 노진용 조성훈 이영기
전 진 최진수 문준석 박재석 송 희 이호성 권세원
김대호 김예니 김은수 김정주 김정현 김지선 김현진
노영훈 류서진 박해은 백문정 서한호 송지은 송지호
안도현 양광모 양명규 오승연 유이성 유정욱 윤두천
윤정환 윤초롱 이대은 이윤정 이윤환 이해연 임영미
임재춘 장석영 전민영 전신정 전준영 정소현 정은영
정지연 정진주 조아라 조유리 최소영 최연정 최유진
(이상 제약학 전공 56명)

수상자 명단

■ 교내수상자

● 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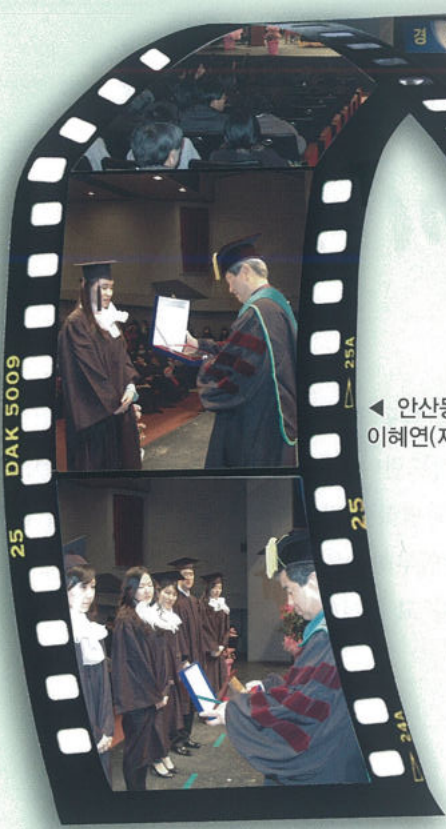
- 대학수석 : 정진주(제약학과)
- 전공수석 : 정지혜(약학과), 윤초롱(제약학과)
- 전공차석 : 노현수(약학과), 조유리(제약학과)

● 공로상

- 임재춘(제약학과), 성철훈(약학과), 권세원(제약학과)

■ 교외수상자

- | | |
|---------------------|-----------------------|
| 대한약사회 : 정진주(제약학과) | 서울특별시약사회 : 전찬오(약학과) |
| 경기도약사회 : 신훈정(약학과) | 동작구약사회 : 전 진(제약학과) |
| 본동문회 : 오승연(제약학과) | 여자동문회 : 정소현(제약학과) |
| 안양동문회 : 전민영(제약학과) | 안산동문회 : 이해연(제약학과) |
| 영동포동문회 : 김예니(제약학과) | 한미약품(주) : 조수진(제약학과) |
| 일동제약(주) : 이종철(약학과) | 삼진제약(주) : 남지운(약학과) |
| 건일제약(주) : 백문정(제약학과) | (주)온누리약국체인 : 장재영(약학과) |



◀ 안산동문회
이혜연(제약학과)

◀ 영등포동문회 김예니(제약학과)

◀ 안양동문회 전민영(약학과)

◀ 여자동문회 정소현(제약학과)

▲ 대학, 전공 수석, 차석

▶ 본동문회 오승연(제약학과)

▶ 공로상 권세원(제약학과)

▶ 공로상 성철훈(약학과)

▶ 공로상 임재춘(제약학과)

▶ 대학수석 정진주(제약학과)

2010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윤대봉) 2010년 정기총회가 5월19일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3층에서 개최되었다.

윤대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회 사업에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2010년에는 모교 약학대학 신축 및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선후배간의 유대강화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각 지부 및 동기회의 모임을 활성화 하는 등 동문들 간의 화합과 단결, 전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화 상임부회장은 “회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위로를 보낸다”며 “동문회가 발전하여 모교에 전달되고 대학 개혁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윤대봉 회장



최철화 상임부회장



김대경 학장



김대경 학장은 축사에서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해 모교에서는 신입 교수를 초빙하고 약대를 신축하는 한편 교과과정을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모교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유정사 전임 회장과 이경옥 여동문회 회장에게 총장 공로패를 수여하는 한편 김용옥(3회), 김종렬(14회), 정찬현(20회), 김영식(23회) 동문에게 총동창회장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개최된 2부에서는 2009년도 중요업무 및 사업실적보고, 감사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문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앙대약대동문회의 회칙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당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빈으로는 중앙대학교동창회 최철화 상임부회장, 전국약학대학 동문회장단 협의회 정재욱 회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지석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차도련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진희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서울개국동문회 조병금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서울동문회 조덕원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윤현숙 부회장, 김영숙 총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심중보 회장, 두정효 여동문회장,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김행권 회장, 한국여약사회 고미지 회장, 김대경 중앙대 약대학장 및 한덕용, 손동헌, 김일혁, 허인회 명예교수, 김창중, 염정록, 김홍진, 최영옥, 황완균, 김하형, 오경택 현직 교수,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유영후, 권혁구, 유정사 고문 및 서국진, 홍성철 감사, 김현태 경기도 약사회장, 전일수 충청남도 약사회장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여검사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남부지방법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신순옥(39회) 동문,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동창회장 공로패



김종렬(14회)



정찬현(20회)



김영식(23회)

당선 축하패



김현태(20회)



전일수(22회)

총장 공로패



유정사(10회)



이경옥(19회)

동문회장 공로패



최창원(16회)



한상훈(22회)



이내홍(25회)



문형철(26회)



곽나윤(27회)



허강서(32회)



전경숙(33회)



김보원(34회)



박종구(36회)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 유정사(10회)
- 이경옥(19회)

〈총동창회장 공로패〉

- 김용옥(3회) 건일제약(주) 대표이사
- 김종렬(14회) 보라매성심약국 대표
- 정찬현(20회) 그린프라자약국 대표
- 김영식(23회) 테크노팜대중약국 대표

〈학장 공로패〉

- 정명진(18회) 새명지약국 대표
- 이준상(22회)
- 오흥철(27회) 오박사약국

〈동문회장 공로패〉

- 주성균(12회) 관악구 / 성보약국
- 김영호(12회) 노원구 / 청백약국
- 원장희(15회) 중랑구 / 미래약국
- 최창원(16회) 강남구 / 유진약국
- 한상훈(22회) 은평구 / 응암프라자약국

- 박상진(23회) 성북구 / 굿모닝약국
- 이내홍(25회) 수원시 / 건강약국
- 문형철(26회) 인천시 / 한길온누리약국
- 안재용(26회) 송파구 / 메디안약국
- 곽나윤(27회) 여동문화 / 오렌지약국
- 손병로(29회) 안양시 / 충훈당약국
- 허강서(32회) 안산시 / 신안프라자약국
- 김형기(32회) 강동구 / 암사현대약국
- 전경숙(33회) 동대문구 / 답십리백화점약국
- 김보원(34회) 부천시 / 메디팜큰약국
- 박종구(36회) 구로금천 / 녹십자약국

제28회 동기들 소식

1980년 3월 대운동장에서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우리 80학번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반복되던 데모와 휴교령으로 신입생의 낭만 대신 최루탄 냄새와 더불어 살았는데, 이때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음을 뒤에 알았지요.

그래도 2학기에 다시 찾은 학교에서 강의실, 푸른 루이스가든, 청룡연못, 도서관, 학생회관 곳곳에 추억을 만들며, 수강과목 선택의 기회도 없이 주어진 고등학교 시간표(?) 같은 시간표대로 4년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들으며 160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재시험의 추억도, 각종 동아리(각종 실험반, 약창, 약수, 약협, 진생라디스, 타임반, 전체서클 등) 활동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들고 문무대 입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약사고시 준비하느라 타 단과 대학생들이 비운 도서관에서 1월 중순까지 열공하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시절이 꿈도 희망도 사랑도 끈끈한 우정도 많은 시기였나 봅니다. 동기끼리 결혼한 친구도, 선배·후배와 결혼한 친구도 여럿입니다.

2009년 동기들 모임 후 찾은 학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이 약대건물이 신축중이지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개성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교수님으로부터 평생의 지식을 배우고 동고동락을 함께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20대에 만나 그 시절 우리들 같은 아들, 딸을 둔 부모가 된 120여명의 동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현재도 연락이 되는 친구들은 5,60여 명입니다.

그동안 쪽~장기집권(?)을 한 초대회장과 총무(안희규, 장원규) 덕분입니다. 2009년부터는 회칙도 만들어져 3년 임기의 2대 이병천 회장, 이영주 총무로 이어 집니다.

모교의 교수(임채욱), 동덕여대 교수(임세진), 종로구 분회장(이병천), 마포구 분회장(양덕숙), 구리시 분회장(최용철), 철강업체 대표이사(안희규), 제약회사 임원(구영삼, 김미경, 김성진, 김현식, 원태수, 장원규, 정원태)이 된 친구들은 물론이고, 약국을 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교도소에서 약무를 하며 근무하는 친구(이생수)도 있고, 학교 다닐 때 예수님으로 불리던 친구(김상현)는 목사님이 되어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고, 취미활동에 적극적이어서 그림 전시회를 여러번 한 이숙희 동기, 한복 전시회를 한 김윤경 동기도 있고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있지요.

1년에 4번 계절별로 만나는 동기 모임에는 20명 전후가 모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 출장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 문인가 봅니다. 동기들의 경조사에서의 번개모임도 있지요.

2009년 10월 18일 약학대학 체육대회에 19명이 골프, 족구, 바둑, 윗놀이, 단체 줄넘기, 배구공 PK에 참석하였으며 준우승을 하여 25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배가 나오고,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카락 숫자는 줄어 들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 써야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한해 한해 늙어감을 아쉬워 말고 원숙해짐에 의미를 두며, 두루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도움 받기보다 도움주는 것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도 올 가을 입학 30주년 행사에서는 모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병 천, 이 영 주 -



제2고향이 된 파주와 재파 중대약대 동문회 근황



권창호 (19회) 파주지부장

파주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30년... 20대 후반 총각약사가 이젠 50대 후반이 되었어도 그때의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생생한 것은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기대 할 수 없었던 한반도 서북부의 외진 곳에서 피어난 동문들의 훈훈한 온정 탓이라 생각된다.

당시 파주에는 구난회(2회,작고), 김진근(작고), 김홍주(은퇴), 차연홍(3회), 탁수현(4회,작고), 채제남(작고)을 비롯해 임성빈(작고), 도기곤(은퇴), 김홍배(동성), 박윤상(건강) 등의 원로 동문들과 김상각(중앙), 홍현식(성현), 조춘우(조) 동문이 등지를 틀고 있었고, 몇 년 후에 파주 출신 조진환(모범), 김재영(동화) 동문이 합류하게 되었다.

파주에서 동문회를 통하여 인연을 맺은 분들 중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약국을 하시면서도 당시 석탑산업훈장까지 수여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 개척자 중의 한분이셨던 김진근 선배(광탄약국)와, 환갑 넘길 즈음 운영하시던 약국을 다른 업종에 임대를 주시고(동료 약사들에게 누가 될까) 과감하게 정년퇴임(?) 후 최근 담배까지 끊고 제 2인생을 즐기시고 계시지만 당시만 해도 줄담배와 약국 업무 보다는 내기바둑을 즐기시면서도 가을이면 과수원에 초대하여 손수 농사지으신 꿀맛 사과 한 상자씩 주시던 김홍주 선배(일진약

국)의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기도 하였고 유독 눈에 선하다.

특히 약국을 하시면서도 파주와 서산 간척지에 대규모 양식장을 운영하시던 김진근 선배는 양식장에 동문과 가족들을 초대하시어 회를 뜨고 매운탕을 끓이고 한편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펄떡이는 송사리를 뜰채로 한바구니 가득 잡아 튀겨낸 훌륭한 안주거리로 마련한 푸짐한 식탁 주위에 둘러 앉아 동문간의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수시로 배려하시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시어 동문들은 좁은 약국생활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은 다양한 인연들이 악연 또는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1980년대 파주에서 중대 동문회를 통하여 비록 약국을 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끼를 최대한 살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김진근 선배와 유유자적 하시는 것 같지만 줄담배 연기에 감추어진 눈매에 개성상인의 썸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한 김홍주 선배의 경우처럼 약국생활과 병행하여 실속있는 삶을 즐겼던 분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행운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의 경우도 단조로운 약국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방황하기 보다는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선배들의 삶의

방식에 용기를 얻어 좁은 공간에서의 약국생활을 보완하고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정진한 탓에 아담한 art studio도 마련하여 나무도 가꾸고 텃밭도 일구며 자연과 함께한지 15년이 지나, 이제는 그만의 특성을 갖춘 창작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개국생활의 유종의 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순리대로 제2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좋은 인연의 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끈끈한 추억을 간직하고 제2의 고향이 된 파주도 30년이 흐르는 동안 1980년대의 보잘 것 없는 전형적인 군사도시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최첨단 U-city를 표방한 교하신도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파주출판 문화정보단지,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통일시대의 교통 요충지로 구축중이며 과거 냉전시대의 산유물 이었던 DMZ가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3땅굴, 통일동산, 임진각이 어울려 안보관광 및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중이며, 헤이리 아트벨리와 같은 문화공간과 어울려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동문회의 경우도 과거부터 약국을 영위하고 계신 동문들과 최근 새 동지를 틈 김광복(신세계), 김재섭(백세), 민희정(팜스프링), 박혜수(21세기), 심미선(다인), 양현홍(실로암), 이효숙(하나로), 장재권(신도시), 전보연(중로태평양), 정만기(영제당), 한완식(미소) 동문들이 비슷한 구성비가 되고 있지만 아마도 새로 동지를 틈 동문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그동안 10여년이상 동문회를 이끌던 김상각 동문(중앙약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과거의 아끼자기한 동문회 분위기를 밑거름으로 미래의 파주에 걸 맞는 중대약대 동문회로의 진화를 위하여 김광복 총무(신세계약국)와 김재섭 부총무(백세약국)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졸업50주년을 마치면서...

황훈의 이야기

금년 경인년은 제4회 약대 졸업50주년이 되는 해이며, 40주년기념식을 진행한 앰배서더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들 백발이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파인 노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산이 다섯 번 바뀐 세월이다 보니 회원은 많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지난날의 추억들을 나누다 보니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 애도하는 뜻에서 유희은 생략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주에서 9명이 참석하게 되어 10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대화 분위기는 제3의 인생인 노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한 건강한 정신생활, 음식조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허인회 박사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웃으며 삽시다.'를 외치며 한시 구절을 털어 놓았습니다. 약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 영화로운 것도 없고 욕되게 한 것도 없는 우리들, 좋은 친구들 입 벌려 웃고 즐기며 취미생활로 여생을 살아갑시다.



천흥기 (4회) 동기회장



아직까지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 해를 주었지만 2010년 이후로는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힐링홈(healinghome) 즉, 자연 환경의 집으로 꾸며 생활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하는 행복 물질이 형성되어 감정, 행동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인 것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습관도 중요합니다.

- ① 밥 한 숟가락에 30번을 씹어야 다이어트가 되고 소화촉진을 시키고 암도 예방된다.
- ② 마사이족처럼 걸어야 한다. 사냥감 찾는 것처럼 걷는다.
- ③ 명상을 통해 화를 풀어준다.
- ④ 서둘지 말고 느리게 사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행사 다음 날 미주에서 온 동기들과 공주에 있는 동기의 농장을 방문하여 과수의 언덕을 걸으면서 고향의 흙냄새, 시골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무공해 음식을 먹고 외국에서의 생활들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모인 동기들과 다음 60회 졸업 모임을 약속하면서 아쉬움을 다음으로 미루며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대동문회 윤대봉 회장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다

흰색 플로 티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정장차림의 신순옥 동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약사로서 약사 아닌 다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별난 동문 인터뷰 주인공이다.



한약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 하고자 했던 열혈 약학도

학창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주저함 없이 한약분쟁 와중에 약사가 매도 당하는것이 너무 억울해 선배, 동기 등과 함께 팀을 짜 국회의원, 변호사 등을 찾아가 정치적, 법적으로 한약분쟁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했던 일을 꼽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설픈 풋내기 약학도의 오기였지만, 그와 같은 열정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한다.

평범한 약사에서 따뜻한 감성을 지닌 검사로 다시 태어나다.

95년 약대 졸업 후 제약사 특허업무, 전업주부, 약국 근무약사의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신동문이 법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대구지법에서 현직 판사로 근무 중인 남편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두 아이 엄마, 한 남편의 부인, 시부모의 며느리라는 가족관계 속에서 사시공부를 해야 했던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제 46회 사법고시에 당당하게 최종합격하는 저력을 보여준 신동문은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후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서 약사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삶의 첫발을 내디게 된다.

“검사로 재직시 붙잡혀온 가출 청소년을 엄마가 자식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고 설득하여 집으로 귀가시켜 다시 학업에 정진케 했던 일이 있었는데,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그 청소년으로부터 안부 인사를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문이 기억하는 검사생활은 여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칠고 험한 일이었을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가 많은 보람된 업무였다고 회고했다.

변호사로 법조인 삶의 제 2막을 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로서의 삶을 살아온 신동문은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다. 검사와 변호사 업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다.

“검사가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적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위치이



신순옥 (39회) 변호사

학력 : 중앙대 약학과 91학번
95년도 졸업

경력 : (주)종근당 95-96 근무
약국 근무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2009.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근무

(현) 변호사

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시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자녀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신동문 가정은 속칭 맞벌이 가정으로 남편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로, 본인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검사생활 당시 주로 일에 매달려 육아와 자녀교육에 소홀했다는 신동문은 일과 자녀교육에서 모두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준 덕분인지 두 아이 모두 스스로 주어진 공부를 충실히 하는 편이라 특별히 사교육을 시키진 않아요. 다만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교공부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연수원 생활, 검사생활하느라 사실 애들에게 엄마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못해 무척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자녀와 소통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다.

약사와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후배 약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 물었다.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모범이 될만한 롤 모델을 찾아 배운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힘들고 외로울 때 큰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문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여 활동한다면 동문문화 다양화와 동문회 인적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저도 하나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문회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다.

동문회에 젊은 후배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를 풀어낼 묘수가 있는지 물어봤다.

“동문회가 주최가 되어 약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강의를 개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모교 후배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면서 동문회 존재와 중요성을 알려간다면 좀 더 쉽게 동문회에 다가가지 않을까해요. 학창시절부터 동문회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약학과 법학은 서로 인문계와 자연계로 학문영역을 서로 달리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실(사건)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점에서 똑같다며, 약학을 공부하면서 몸에 체득한 과학적 추리와 논리구성 능력은 검사와 변호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는 신동문은 먼 장래에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법률제정에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또박 또박 핵심을 짚어가며 답변하는 모습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에 투철한 신뢰받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가까운 선후배 동문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찾아뵙고 연락하며 지낼 거예요. 비록 약계를 떠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고향인 중대약대와 동문 선후배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랑하는 동문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인터뷰는 동문 선·후배들에 대한 지상인사를 끝으로 어스름한 저녁이 내릴 때 즈음 마무리되었다.

- 인터뷰: 조 양연(32기) 편집위원



회칙개정



변화!

역사를 들어올린다.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장

질병 치료의 새 장, 줄기세포 치료제

이미 우리 귀에 생소하지 않은 줄기세포가 지금 인류 질병 치료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구태여 황우석 박사의 해프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 무수히 많은 논문과 이론, 임상시험 결과가 쏟아지고 있으니 건강관련 직능인의 일원으로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술지 Newton 2008.6월호 인용)



장 원 규 (28회) AnC B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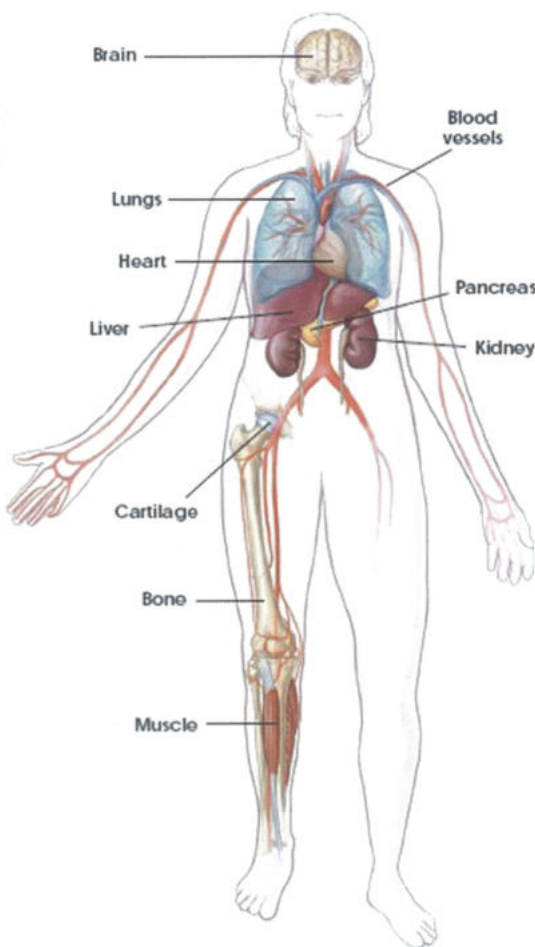
■ 줄기세포 치료의 개념은 재생능력

인간의 질병은 조직이나 장기가 어떤 이유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치료법은 약물투여, 운동/식이요법, 물리치료, 외과적 수술 등을 통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병변 부위의 생리적 기초단위인 세포가 치료 후에도 후유증 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세포로 되돌아 가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세포치료는 병변 세포를 처음부터 정상적인 세포로 치환한다는 개념이다.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베타세포가 될 줄기세포를 아예 심어준다는 개념이다 (물론 이 경우는 개념단계로 임상적인 성공 케이스는 아직 없다). 이렇듯 줄기세포 치료란 세포재생을 뜻한다.

도마뱀은 꼬리가 잘리면 꼬리가 재생된다. 1cm 정도의 편형동물 플라나리아는 몸을 3등분하면 각각이 몸 전체가 재생되어 3마리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이 재생되진 않는다. 몸통이 잘려 나가도 재생되는 플라나리아와 손가락 하나 조차도 재생되지 않는 인간,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까? 그에 대한 답은 줄기세포(stem cell)에 있다. 줄기세포는 플라나리아와 인간 모두에게 있지만 그 능력이 크게 다르다. 플라나리아 줄기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생물학적으로 전능성(totipotent)이라 한다. 이에 비해 인간의 몸에 있는 줄기세포(성체줄기세포)는 이런 능력이 없다. 이미 분화방향이 결정되어 있어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는 피부가 되고, 장에 있는 세포는 장이 되기 때문에 재생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 인간의 전능성 줄기세포 수정란, 분열되면서 전능성 소실

그럼 인간은 이런 전능성 줄기세포가 없는 것일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이 바로 몸의 어느 세포로도 될 수 있는 전능성 세포이다. 하



지만 이 전능성은 분열을 시작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생쥐를 이용한 결과, 수정란이 2회 분열한 4개의 세포를 제 각각으로 나누어도 각각 정상적인 개체가 되지만 다시 한번 더 분열한 수정란을 나누면 더 이상 개체가 되지 않는다. 인간도 이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수정란으로 직접 실험할 수는 없었을 터!). 이렇게 전문화해서 각각의 장기가 되는 과정을 분화라 하는데, 이 분화과정에서 일단 피부세포 쪽으로 분화가 되면 더 이상 적혈구나 신경세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분화과정 중 세포의 핵에 있는 유전정보는 약 2만 5천 개 정도라 한다.

■ 전능성 가진 배아줄기세포의 탄생

만약 인류가 전능성을 갖춘 인간 줄기세포를 얻는다면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바꾸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꿈인데 그러한 꿈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배아에서 꺼낸 배아줄기세포(ESC, Embryonic stem cell)가 그것이다. 배(胚)는 수정란이 태아가 되기 전의 세포 덩어리인데, 수정

후 6~7회 정도 분열해서 생긴 100여 개의 세포 덩어리를 특히 배반포라 한다. 이 세포가 인체의 모든 세포가 되는 전능성을 가진다. 1981년 영국의 생물학자가 생쥐의 배반포 세포를 꺼내 시험관에서 배양시키

는데 성공한 후 미국의 톰슨 교수가 인간 배반포로 실험에 성공했다. 이 세포가 인간에게 필요한 조직 일부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재생의학의 꿈으로 대두된 것이다. 줄기세포는 특정 조건에 따라 심장 근육세포도 될 수 있고 인슐린 분비세포도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ES세포의 장벽, 윤리문제와 면역거부 반응

하지만 이 배아줄기세포로 인간의 조직 일부분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이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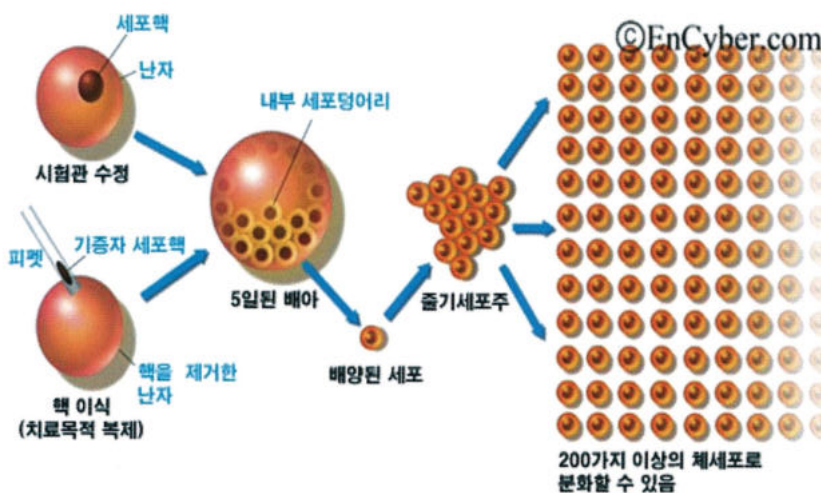
금껏 이 배아줄기세포는 불임치료를 위해 인공수정되어 냉동보관된 잉여 수정란을 사용해왔다. 여러 개의 수정란 중 임신에 성공되면 남아있던 냉동보관 수정란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를 폐기하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부부의 허락을 받아 배양하여 분해했던 것이다. 즉, 자궁으로 되돌려지면 태아가 될 배반포를 분해하는 것이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치료받을 환자의 DNA와 잉여 배반포에서 나온 줄기세포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치료에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른바 "초기화"가 이 문제의 열쇠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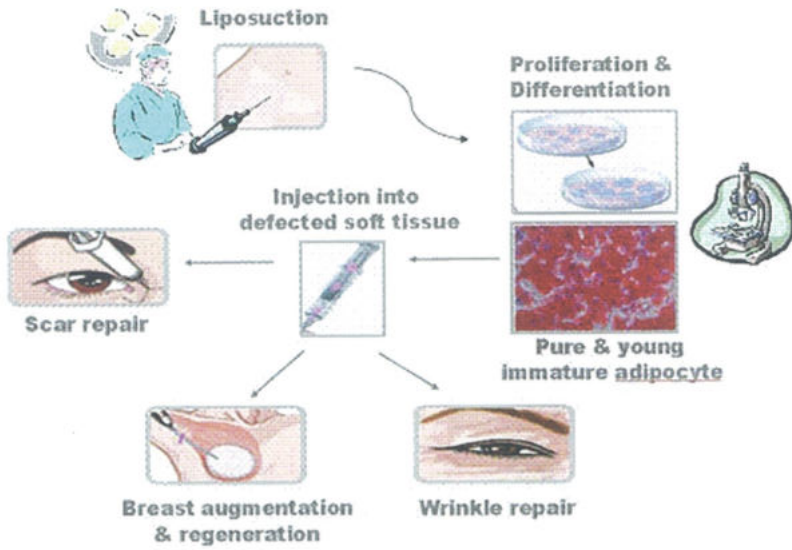
■ 줄기세포 초기화의 길을 연 복제양 돌리

면역거부 반응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환자자신의 세포를 만능세포로 만드는 이른바 "초기화"이다. 그런데 이미 분화된 세포를 가지고 다시 초기 줄기세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초기화는 포유류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상식을 영국의 이언 월마트 교수가 복제 양 "돌리"를 탄생 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즉, 양 A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여기에 다른 양 B의 젖샘세포의 핵을 이식한 후 세포분



열을 시켜 이를 양 C의 자궁에 넣어 건강한 양 B와 똑같은 돌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수정란이 아닌 체세포로 세포를 초기화해서 복제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뒤이어 황우석 교수가 인간의 체세포로 성공했다는 시험 결과를 알리자 세계는 드디어 재생의학의 꿈이 실현된 것으로 흥분했던 해프닝을 우리는 씁쓸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자의 필요성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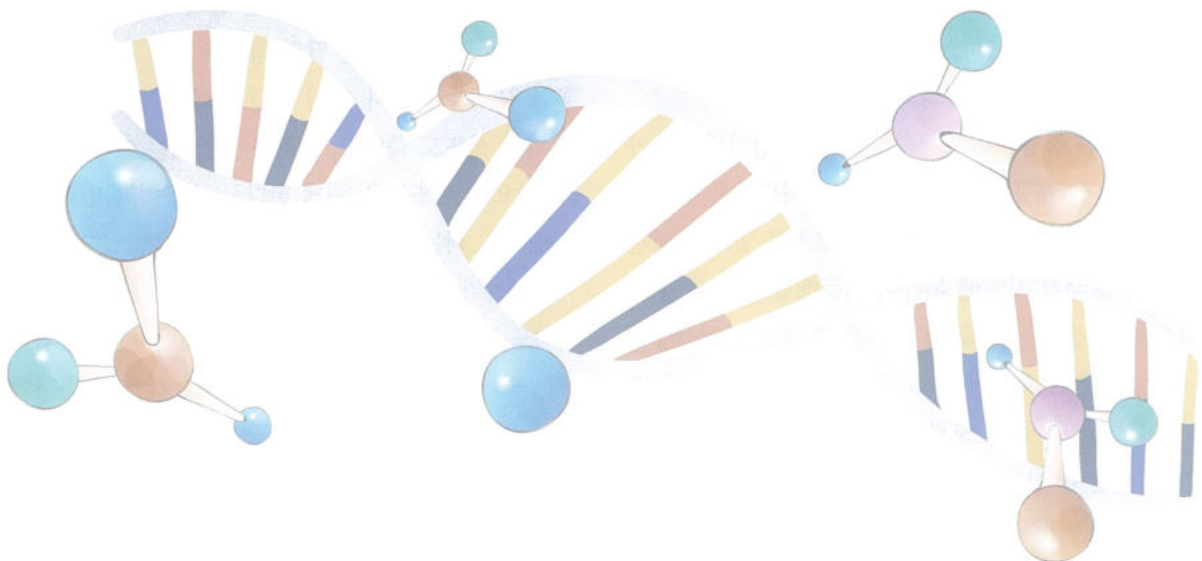
을 채취해 여기서 근육(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 이를 배양해 심근경색으로 괴사된 심장부위 안쪽에 직접 주사하면 괴사부위에서 심근의 재생효과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환자의 몸 속에서(성체)줄기세포를 찾아 이를 체외에서 배양해 병변부위로 다시 되돌리는 치료를 자기세포(autologus) 치료라 한다. 이에 비해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하면 이를 동종세포(allogeneic) 치료라 하는데,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불편함이 없으니 환자에겐 유익하다. 이는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입증된 연골세포 같은 관절 재생의학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치료제, 임상 끝내고 제품화 단계

아직도 배아줄기세포는 그 전능성으로 인한 기대로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윤리적 문제와 면역거부 반응은 여전히 난제이다. 이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환자 자신에게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이른바 자기(성체)줄기세포 치료인데, 이미 임상시험을 끝내고 속속 제품화되고 있다. 비교적 쉬운 예로 지방줄기세포는 피부 흉터나 함몰 주름개선 치료에 사용된다. 또, 환자의 제대혈이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얻어 이를 면역항체를 만드는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암세포에 노출시켜 생성된 항체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심부전 환자의 근육에서 근육조직

이에 반해 인간이 아닌 다른 종(species) 즉, 동물로부터 채취된 세포를 사람에게 이용하는 이종세포(xenogeneic)도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돼지의 인슐린 분비세포를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 연구단계이다.

이렇듯 세포치료제는 주로 이미 분화방향이 예정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배아를 사용하지 않아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면역반응 문제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전 단계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치료분야로 발전해가고 있다. 약사법규에서 이런 의약품을 세포치료제라 하며, 국내에서도 이미 20여 개의 제품이 허가되어 마케팅 중이거나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장미 넝쿨에 비는 내리고

지난 여름 밀양에서 선배 류(柳)형 부부를 만났다. 류형은 학교 시절에도 옛 기담(奇談)이나 전설의 고향 답사를 전공처럼 하더니, 이제 약국은 부전공쯤으로 해두고 전국을 돈다는데, 이번에는 밀양에 전해오는 '아랑(阿娘)의 전설' 현장을 찾아오신 것이다.

아랑은 옛날 밀양 부사의 딸이었다. 뛰어난 자색으로 못 총각들의 선망이었는데, 한 고약한 사내의 무모한 구애에 저항하다 아랑이 그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함량미달일 수밖에 없는 천출의 사내가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만, 밤이면 나타나는 아랑의 원혼(冤魂) 때문에 밀양 고을이 한 동안 소란했던 일로, 조선 명종때 실화를 근거로 한 몇 가지 변안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성품이 걱정적인 류형은 맥주 몇 잔에 금방 상기된 채, 아랑의 허무한 죽음을 애통해 하며 그 고약한 사내놈을 질타하는데, 부인은 사랑의 결기가 빛은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달리하는 통에 부부 사이에 논란이 비등해졌다. 논란의 수습도 필요했지만, 오랜 선배와의 해후를 휴게소 간이식당에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교외 가든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도를 넘고 말았다. 끝을 모르는 류형의 주량 때문이었지만, 체질이 비슷한 내 탓도 있었다.

어느 새 해는 떨어지고, 뜰에는 푸른 외등 아래 비에 젖은 붉은 장미가 월하(月下)의 미인을 연상케 하였다. 도연(陶然)



정 영 기 (10회)

한 운치에 눈치가 무디어져, 부인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것도 몰랐다. 지루함을 참느라 앉았다 섰다를 되풀이하다가 바깥을 서성이며 화를 삭이고 있었다. 창 밖에서 두 취객의 작태를 노려보는 파리한 부인의 모습이 월하미인인가 싶은데, 류형은 아랑의 모습이 저랬을 거라며 부인의 미모에 찬사를 보냈다.

이쯤 되니 죽음을 선택한 아랑의 저항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사랑의 결기라는 말에 공감이가는 것도 같았다. 문제는 시신을 은폐한 것이었다. 함께 죽지 못하면 통곡으로 자복하여 사랑을 승화시킬 일이지, 시치미를 떼다니! 사건은 미궁인 채 사또는 딸의 행방도 모르고 차임지로 떠났다. 후임 사또가 왔으나 부임 첫날 밤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또 다음 사또도 죽었다. 그러자 향간에는 아랑의 원귀가 설한(雪恨)으로 사또들을 죽게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심도 흥흥해지고, 더는 밀양부사로 오려는 자가 없었다.

전임자가 차례로 죽는 판에, 신임 사또는 밀양관아에 들어 서기도 전에 가슴이 옥죄어 들었을 것이다. 지레 겁먹다 보면 잠든 병아리 콧김에도 까무러치는 법. 깊은 밤 동현에는 비수 같이 푸른 달빛만 교교하고, 극도의 긴장으로 숨통이 터질 지경인데, 대숲에 설렁이는 바람 소리는 원귀의 치맛단이 땅을 끄는 소리라, 이미 혼백이 비산하여 원귀와 마주하기는커녕, 기절 아니면 심장마비로 나자빠졌을 것이다.

사또가 없는 관청은 일손을 놓은 터라, 아랑의 행방은 어찌 찾을 것인가? 이런 차에 붓장수로 가장한 당찬 사나이가 사또를 자임하고 나섰다. 육방관속을 죄다 독대하여 이미 사건 전모를 파악한 듯했다. 하지만 야심한 관아를 홀로 지키게 된 사또는 벼루에다 먹 대신 경기(驚氣)에 쓰는 붉은 영사(靈砂)를 갈았다. 큰소리는 쳤지만 심약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나? 기이한 바람결에 문풍지가 떨고 촛불이 꺼졌다. 예의 원혼이 찾아오는 모양이었다. 또 한 목숨이 황천으로 갈 거라는 사람들의 걱정 속에 밤은 깊어갔다.

이윽고 닭이 울고 날이 새자, 모여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죽었어야 할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원귀를 물리친 그는 어제의 붓장수가 아니었다. 누구도 허튼 소리를 못할 무서운 판관이 되어 있었다. 아랑의 피가 영사빛으로 붉게 물든 여인의 속옷을 들고 뚫어지게 노려보자, 한 녀석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놈이 범인이었다. 때마침 흰나비 한 마리가 설한을 고마워하며 주위를 맴돌고 홀연히 제 갈 길로 날아갔다.

이를 두고 죽더라도 사또나 한번 해보고 죽겠다는 젊은이의 객기쯤으로 전하는 후일담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의로운 사나이의 지혜가 스스로를 붓장수로 가장한 것이다. 붓장수 같은 백의(白衣)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데, 공인이란 자들이 내몰라라 꿈무늬를 빼거나 겁에 질려 자빠지는 꼴을 질타한 것이다. 희생을 각오하는 공인의 덕목을 후일의 공복에게 에둘러 시사한 것이다.

시신을 찾은 대숲에는 아랑의 넋을 달래는 비석과 사당이 있다. 그러나 죽음의 애도에만 치우친 옛 사람들의 일처리는 미흡한 데가 있다. 사건을 해결한 젊은이는 뜨내기 붓장수로만 전해지다니! 그를 재조명해야 한다. 그를 위한 기념물 설치를 밀양시장에게 건의하자는 제의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클랙슨 소리가 뽐뽐 거꾸 울어댔다. 부인이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만 하라는 애원을 열 번도 더 무시하고 서로 붙들고 자정을 넘겼으니.

마지막 경고차 들어서는 비에 젖은 부인의 파리한 얼굴은 마주치기가 무서웠다. 폭발 직전의 기미를 알아채고야 자리를 일어섰다. 심기 불편한 부인이 빗속에 운전할 일이 걱정돼 말렸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핸들을 잡고 앞만 노려보다가, 뒷문이 닫히자 그대로 내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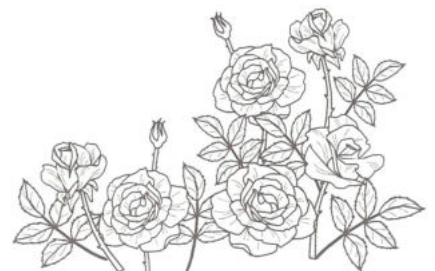
부부의 다음 목적지까지 지름길은 반 시간이면 고속도로에 이른다. 도중에는 귀신 출몰로 소문난 아홉골 여우재를 넘어

야 한다. 반 시간이 넘었을까.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니나다를까 귀신에 홀린 것이다. 남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겁에 질린 음성이 두서가 없었다. 톨게이트 요원이 전화를 바꾸었다. 화가 잔뜩 실린 굳은 표정의 부인이 “차비 내!”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구겨진 남자 윗도리만 있고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류형이 윗도리를 거머쥐고 영금영금 기어가 뒷좌석에 놓는 걸 직접 본 내 눈을 믿지 말아야 하나? 그건 류형이 아니고 귀신이었나? 서둘러 택시를 불러 산길을 넘을 때 내 모양도 귀신에 홀린 듯했길래, 기사도 겁먹은 눈으로 나를 자꾸 곁눈질했다. 아홉골 열여덟 구비를 다 돌도록 의문은 풀리지 않는 데, 기사가 “으윽!” 비명을 질러 나를 기절시켰다. 귀신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오밤중 산길 바위 틈에 웬 사내가 쭈그리고 있었다. 류형이었다. 완전히 물에 빠진 귀신 꼴이었다. “전화라도 걸지. 핸드폰은 댔다 뭐해!” 나무라자, 류형은 되려 호통을 쳤다. “윗도리에 있는 걸 무슨 수로!”

톨게이트에 와서 남편의 대갈일성은 “소변 중에 내뺐다 니!”였고, 되받아 치는 부인의 대답은 “문을 랑 닫았잖아!”였다. 토라진 부인을 달래 차를 세우고, 캄캄한 밤길에 퍼붓는 비를 맞으며 시원하게 한참 일을 보다가, 문득 차 안으로 들이칠 빗물이 걱정되어 뒷발로 문을 밀어 찬 것이 출발 신호였고, 부인은 신호 즉시 엑셀레이터에 급발진 화풍이를 한 것이다.

자판기너머 울타리엔 붉은 장미가 비바람에 떨고 있었다. 한동안의 공포에서 해방된 부인이 날라다 준 커피를 들고 마주서서 웃고 있을 때, 부인이 불룩하게 내민 입술에 장미 꽃잎 서너 개를 물고 남편 앞에 우뚝 서자, “처연한 모습이 아랑의 미모입니다” 라며 남편은 애교스런 너스레를 떨었다. 웃음을 참는 부인의 입술에서 검붉은 커피가 핏물처럼 흘러내리자, “그대는 어인 일로 사또 앞에 현신하였는고?” 라는 류사또의 심문에, 부인의 대답은 “소녀, 붓장수를 만나러 왔나이다”였다. 의기와 지혜의 사나이, 멋쟁이 붓장수! ?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唐나라시인 李商隱의

七言律詩



허인회 (4회) 명예교수

昨夜星辰昨夜風(작야성진작야풍) 어제 밤별이 뜨고 밤바람이 불었는데
 畫樓西畔桂堂東(화루서반계당동) 채색된 누대의 서쪽과 계수나무집 동쪽사이
 身無彩鳳雙飛翼(신무채봉쌍비익) 몸은 두 날개달린 고운빛의 봉황이 아녘지만
 心有靈犀一點通(심유령서일점통) 마음은 한점으로 통하는 신령스런 무소뿔이었지
 隔座送鉤春酒暖(격좌송구춘주난) 자리를 떠나 고리 옮기기 놀이할 때 춘추는 따뜻했고
 分曹射覆蠟燈紅(분조사복납등홍) 편 갈라 사복놀이할 즈음 촛불은 붉었네
 嗟余聽鼓應官去(차여청고응관거) 아! 새벽 종소리 듣고 관청으로 가는 나
 走馬蘭臺類轉蓬(주마란대류전봉) 비서성으로 말 달려가는 꼴 떠도는 쭉대같지요

Untitled

Last night's bright stars ; last night's breeze;
 West of the painted dower, east of bay tree hall;
 No phoenix wings on my dody, to fly away with you;
 But our thought link by the rhinestone,s magic
 Across tables we "passed the hook" with spring wines warm;
 Our team played "gess what" under candle lamps bright.
 Pity I have to hear the dawn drum calling me duty;
 And ride between lofty offices like a detached reed



▲ 12월 3일 손익동(22회) 교수 최우수 약리학자상 수상

▲ 1월 19일 안산지부 정기총회

▲ 2월 9일 안양지부 정기총회



◀ 조의환(8회) 동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24차 정기총회에 서 이사장으로 재선임

▲ 3월 2일 제26호 편집위원회의



▲ 2월 18일 2009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3월 4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 수상동문 : 약사금장 임상목(8회), 약사금탑 정덕기(23회), 약연상 주정덕(10회), 이호선(20회), 보건복지부장관상 강희윤(22회)

3월 9일 제3차 회칙개정위원회의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종렬 위원장, 임영식, 유대식, 한갑현, 박영달, 최두주 위원



▲ 3월 1일 강남지부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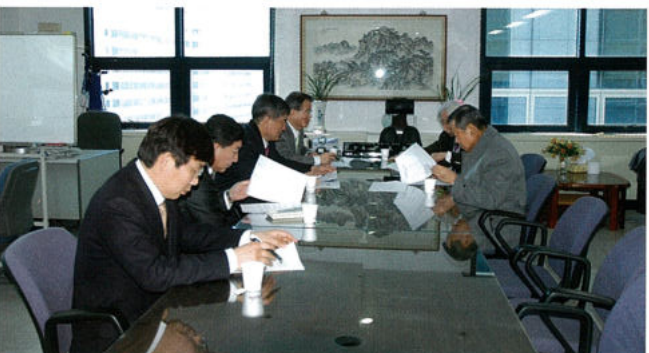
▲ 3월 9일 영등포지부 모임



▲ 3월 25일 2010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 장 소 : 모교 교수세미나실



▲ 4차 회장단 특별회비 전달식
• 유대식(22회), 강희운(22회), 최면용(27회), 이병천(28회), 양덕숙(28회)



▲ 3월 18일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4월 15일 4회 졸업 50주년 기념식

- 장 소 :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4층
- 동문회 발전기금 2,000,000원



▲ 4월 17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 5차 회장단 특별회비 전달식
• 윤대봉(14회), 김광식(16회), 정찬현(20회), 한갑현(26회), 김정호(27회)

12월 15일 김영수(6회) 동문 미국역사상 최고령 "미국약학시험" 합격

천안함 성금 기탁자 명단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조기성 원장의 임직원	3,000,000
한국감사협회 이원형 회장과 회원 일동	3,000,000
중대 약대동문의 윤대봉 회장의 이사 일동	3,000,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세익의 직원 일동	3,000,000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임직원 일동	3,000,000

▲ 5월 2일 천안함 성금모금방송 KBS 1 TV 9시 뉴스중 방송

발전기금 조성 내역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36억 8천 9백 2십만원 (2010. 03. 31까지)

2009~현재까지 발전기금 (단위:만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R&D센터 신축공사



신 규 약 정 2009년 2월~2010년 5월 납부자

교 수

김대경(1,000), 김창종(200), 임채욱(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300), 황광우(300), 이재휘(200), 최형균(200), 조사연(200), 민혜영(500), 김현정(500),
 손동현(300)

동 문

조택상(500), 나용태(300), 고재호(120), 이창경(100), 3회 동기회(200), 서울시 공직 중대 약우회(200),
 박성학(500), 김원호(500), 1회 동기회(100), 손수정(200), 한갑현(500), 윤대봉(500)

제약계 및 기업

일동제약(50,000)

교 수 총 23,400 만원

〈교내〉

손의동(1200+500), 김대경(500+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김창종(700+200), 임정록(700),
 이민원(1000), 임채욱(500+500), 김하형(500+500),
 황완균(500+500), 황광우(500+300), 손동현(500+300),
 심상수(500+500), 이재휘(500+200), 조사연(500+200),
 최형균(500+200),

천영진(500+300), 이도익(500), 김기호(500), 김종갑(500), 김현정(500)

오경택(500), 김홍진(500), 허인회(500), 민경훈(500),

홍순각(600), 이광표(500), 한상범(500), 민혜영(500),

〈타교〉

김진학(1000), 오유진(300),

제현동(500), 주왕기(300),

김동석(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김형춘(360)

역대동문회장단 총 31,4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명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1300)
 정재일(500), 이기안·노신희(500), 임상목(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유정새(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렬(500)
 김승재(500), 김승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1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김명웅(1000)

단체 기부 총 9,490 만원

중삼친목회(300) 미주(L.A.) 3회 동기회(50)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마생실험반 동문회(300)
 7회 동기회(500) 7회 동기회(500), 64예중회(10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약품물리화학동문회(1740) 1회 동기회(300+100)
 11회 동기회 40주년 기념(300) 2회 동기회(200),
 12회 동기회(500), 3회 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학부모및기타기부 총 60,800 만원

한충강 '02 한인빈 학부모, 300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정형식(60,000)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오호정(300)

기수별 통계 (단위:만원)

(1회 4명)
 손동현(500+3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2회 6명)
 고두흔·박명자(700), 홍순각(6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200), 한성순(100)
 (3회 4명)
 김용옥(35,000), 한만우(1,000), 김석재(300),
 조영만·이정자(50)
 (4회 6명)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5회 6명)
 이해석·강태일 (1000), 박명자·고두흔(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6회 13명)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이현영(300)

(7회 26명)
 이기환(1150), 유명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현(500) 김정일(300),
 이기안·노신희(500) 김명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자(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중홍(300), 차승현(300),
 한철희(300), 정연홍(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중(60), 이정자·조영만(50)

(8회 20명)
 이백천(1500), 임상목(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옥재(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9회 10명)
 권혁구(1000), 김홍래(1000), 김영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노신희·이기안(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박성혁(500)

(10회 13명)
 방순환(12000), 박호일(1300), 유정새(1000),
 김광일(500), 이대윤(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왕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서정목(300)

(11회 14명)
 정덕호(500), 김창중(700+2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남기탁(500), 김승업(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송병기(100)

(12회 26명)
 박영찬(1000), 김용환(1000), 최덕구(1000),
 심재용·구옥자(1000), 김승배(1000), 황순오(1000),
 김 구(1000), 이성우(500), 남기탁·홍금자(500),
 강옥희(500), 우준하(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대건(300),
 문혜성(240), 최창목(100), 민명임(100),
 김초성(100), 이원주(100), 조택상(500),

<p>(13회 15명)</p> <p>안병식(1000), 이종각 · 박종애(500) 문재빈 · 김애련(500), 서국진(500), 조성복 · 홍순경(500), 김종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종목(300), 김병현(500), 서효석(300), 김신미(10)</p>	<p>송진용(300), 이진배(300), 유승률(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어경남(300), 김대일(300), 강성무(300), 이규섭(300) 전명선 · 김민숙(600)</p>
<p>(14회 8명)</p> <p>김명웅(1000), 정도연(1000), 김종렬(500), 윤대봉(500+500),故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박기진(300)</p>	<p>(22회 22명)</p> <p>손익동(1200+500), 장용운(800), 정진호 · 강명희(500), 장상대(500), 김홍진(500), 고석순(500), 이준상(500), 유대식(500), 오황영(400), 한만영(360), 강희윤(300), 김철수(300), 박동우(300), 전일오(300), 이정석(300), 최광훈(300), 심재호(300), 이영욱(300), 이상돈(100), 전명선 · 김민숙(600)</p>
<p>(15회 10명)</p> <p>조찬휘(500), 김용의(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위혜주(300), 구옥자 · 심재웅(1000), 박영경(300), 황인영(300)</p>	<p>(23회 19명)</p> <p>박종화(1,050), 권석형(500), 이도익(500), 공인호(300), 김수종(300), 김명식(300), 김항만(300), 양재업(300), 정원국(300), 이승해(300), 이원길(3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조근태(300), 강호영(100), 이정대(100), 박희용 · 김미경(500) 나용태(300)</p>
<p>(16회 16명)</p> <p>강명채(500), 홍순경 · 조성복 (500) 박종애 · 이종각(500), 장건(300), 최광식 · 전순희(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이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p>	<p>(24회 22명)</p> <p>최영욱(1000), 윤규형(500), 김관식(500) 최재윤 · 김윤경(500), 조종래(500), 김승재 · 김희식(500), 임무호(500), 함삼균(350), 이범도(310), 오동근(3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영주(300), 정상수(300), 김상현(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함한성(300), 이규삼(100), 김태두(300)</p>
<p>(17회 13명)</p> <p>김인형(500), 선우영환 · 방금숙(500), 김민수(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p>	<p>(25회 18명)</p> <p>이민원(1,000), 손현우(600), 성낙순 · 강응모(500), 이재희 · 김은진(500), 조석현 · 임홍욱(500), 위성건(500),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희섭(300), 이내홍(3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김춘규(400), 권세형(300)</p>
<p>(18회 10명)</p> <p>강응모 · 성낙순(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종형(300), 김애경(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남애숙(200)</p>	<p>(26회 17명)</p> <p>심상수(500+500), 황완균(500+500), 한갑현(500), 이창훈 · 이숙희(500), 하재일(500), 김안식(400), 김영후(300), 리종우(300), 진희역(300), 최민규(300), 문형철(3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조용백(300), 김학철(300)</p>
<p>(19회 12명)</p> <p>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욱(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p>	<p>(27회 50명)</p> <p>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 · 이정애(500), 방만성 · 조순연(500) 김명혜 · 최평배(500), 최기선(310), 곽순재(3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현기원(300), 홍인숙(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이선애(100), 김희식 · 김승재(500), 이영주(500), 김광선(300),</p>
<p>(20회 27명)</p> <p>임경원 · 이현숙(1,000), 박기배(600), 방금숙 · 선우영환(500), 정찬현(500), 이상일(500), 김현태(500), 김홍진(500), 김영섭(330), 강혜옥(300), 김종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김형춘(360)</p>	<p>(28회 29명)</p> <p>이세진(500), 백기홍(500), 이상일(500), 백운경(550), 박제천(500), 김중호(500), 이병규(500), 박전희(500), 지기봉(500), 이상준(500), 최병철(500), 장철숙(100), 홍종오(500), 김정기(300), 김성만(300), 한성희(300), 안병현(300), 신상길(300),</p>

김미경(300), 양덕숙(300), 이용해(300), 장원규(300), 신길득(300), 박용석(100)	김영희(300), 조효금(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장원규(50),	안희규(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한용문·김미재(300),	〈33회 4명〉 이재휘(500+200), 박재훈(240)	임희원(300), 배규환(300), 김영미(20)	강석연(300)
〈28회 28명〉 임채욱(500+500), 김유곤(500), 이영주(500), 김영희(300), 양덕숙(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신길득(300)	이숙희·이창훈(500), 고재호(120), 김광선(300), 박우종(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한용문·김미재(300),	김윤경·최재운(500), 김희식·김승재(500), 김미경·박희용(500), 안희규(300), 이용해(300), 장원규(300), 조효금(300), 박용석(100)	〈34회 5명〉 민성철(300), 한일권(300)	〈35회 3명〉 황광우(500+300), 곽정근(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29회 15명〉 김은진·이재희(500), 강철선(300), 안성진(300), 이종민(300), 장우성(300)	이 준(310), 김영재(300), 유종운(300), 서경원(300), 정진호(300)	강대용(300), 손병로(300), 유인석(300), 이 철(300)	〈36회 7명〉 안영윤(300), 김동석(300), 방극상(50)	〈37회 5명〉 정병욱(300), 오상희(100)	임성호(300), 박선영(200), 정지훈(200), 방준석(300), 김학림(100)
〈30회 19명〉 김광식·윤기숙(500), 김미영(300), 김현학(300), 조덕희(300), 황유세(300), 서봉호(100)	이장무·김영희(500), 박복자(300), 이인자(300), 천세영(300), 고석일(300)	조순연·방만성(500), 신일균(300), 장부자(300), 최병원(300), 박종진(300)	〈38회 5명〉 오경택(500), 제현동(500)	〈39회 4명〉 민경훈(500), 양성준(100)	조재형(300), 박양혜(100) 박종호(300), 박종혁(300)
〈31회 6명〉 이현숙·임경원(1,000), 변동성(300)	김하형(500+500), 박건규(50)	김진홍(300)	〈40회 2명〉 박성욱(500), 구영준(300)	한국약품(이병두, 300)	
〈32회 7명〉 고은미(300), 서수경(300), 손수정(200)	박은미(300), 채영주(600)	조양연(300), 서용욱(240)	〈41회 1명〉 이창경(100)	〈42회 1명〉 이창경(100)	
			〈43회 3명〉 신명숙(300)	〈44회 2명〉 김수길(300)	강규태(400), 문상희(100)
			〈49회 1명〉 김원호(500)		김중호(100)



2009년도 동문회비 납부자

2009년 6월 5일 - 2010년 5월 18일까지

회장단회비 및 상임위원단 회비 (240,000원)

11회	김승업
14회	윤대봉, 김명웅, 김종렬, 조길도
15회	임영식, 유영중, 장재인
16회	김광식, 유기욱
17회	김인형, 장재인
18회	정명진, 강응모, 전광우, 김기명
19회	김경오, 윤건섭, 이경욱
20회	이호선, 정찬현, 최석중, 김홍진, 박영근
21회	김수배, 이상준
22회	강희운, 박상용, 최광훈, 유대식, 한만영
23회	김영식, 정덕기, 임준석
24회	김승재, 이규삼, 이광섭
25회	최두주
26회	김정수, 한갑현, 최민규
27회	박영달, 박나윤, 김정호, 최면용
28회	이병천, 김영희, 양덕숙
29회	이준
30회	고석일, 김경자, 백영주
32회	이경우, 조양연

이사회비 (120,000원)

1회	김옥동, 홍흥만, 손동현, 이동화
2회	이문규, 정덕화
3회	오세형, 최종묵, 이기상, 노인배, 박준수, 이병호
5회	김영배
6회	안인혁, 유상열, 신정숙, 진교성, 홍병석, 박정배, 김경희, 김동철
7회	유영후, 김영덕, 김정부, 박명신, 이양현, 정재일, 서명규
8회	조익환, 임상목, 박번일
9회	박성화, 김홍래, 김영빈, 윤광로, 박장우
10회	김광일, 정영기, 박호일, 이양원, 주정덕, 방순환
11회	고승하, 김미자, 박희경, 김창중, 최옥출, 황공용
12회	이정구, 조택상, 이성우, 심재중, 구연홍
13회	이종각, 서국진, 박동규
14회	홍성철, 양인승, 유효성, 홍성철, 박기진, 조양연
15회	윤종준, 권영선, 조찬희, 이상용, 박원봉
16회	김제성, 허사길, 고숙자, 최창원
17회	김재찬, 선우영환
18회	김상각, 여운숙, 최한규, 박광숙, 조중형
20회	이상일, 유영내,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21회	김중호
22회	손의동, 이현희
23회	박희웅, 김영출
24회	윤규형, 정종근, 황규진, 김태우
25회	김희섭
26회	진희역, 선우일원, 이승현, 박재길, 김정수
27회	현기원, 이원일
28회	이해룡, 이영주
29회	서경원
30회	최병원

일반회비 (20,000원)

2회	홍순각, 정인장, 김좌상, 최승은, 박병한, 박필일
3회	최동현, 이정주, 오순실, 임종환, 이인석
4회	신승섭, 나수연, 김영대, 정진원, 이영아
5회	김주원, 임갑환, 손규산, 임맹순, 김을경, 윤재훈
6회	이성호, 안대훈, 유복상, 장정희, 김명기, 이종호, 황선창
	임은순, 신의명, 임성호, 김영빈, 조광래, 김태형, 추의호
7회	차승현, 이윤재, 김경동, 이형진, 조경신, 박주현, 조익중
	윤대성, 손중화, 김병익, 이상현, 문정윤, 장남수, 송정애
8회	배정영
	정재용, 유재우, 김진우, 홍봉표, 최재욱, 엄규중, 서동섭
	김형이, 최영자, 임영숙, 유성홍, 박찬수, 정달수, 신현우
	최병준, 정재영, 이백천, 유광중, 김희선, 김기중, 이능자
9회	강효구
	박장규, 이규형, 박준호, 이규형, 박종명, 김학진, 윤정자
	권오성
10회	이장열, 민병창, 김영환, 전광석
11회	양계창, 오성근, 구자영, 차영진
12회	주성관, 홍정덕, 현병호, 홍근수, 이만오, 박홍식, 김대건, 김동욱
	문해성, 이병재, 유건수, 한정수, 임순성, 이훈, 김동욱

13회	김옥기, 우홍길
14회	김창식, 왕문화, 유용상, 유희동, 최승기
	박찬임, 김경원, 김진행, 김진화, 최종택, 정도연, 이용성, 박성호
	김갑동, 김남수, 조병환, 안태화, 김영남, 전영표, 구중모
15회	김유국, 현해경, 조영연
16회	박찬, 남석우, 이명숙, 조경래, 박태호, 김태영, 박명배
17회	이규주, 박종애, 강경식, 신규연, 유영희
18회	유종철, 이희정, 유종관
19회	여운숙, 이복숙, 오윤숙, 이원재, 양만기, 조춘우
20회	남유수, 임종철, 이창욱, 이희진, 장명섭, 김인기, 조안제
21회	정금순, 임경관, 남덕자, 한광식, 윤춘수, 우영각, 김중갑
22회	이영옥, 여경남, 이진배
	장용운, 김중궁, 박성준, 김광준, 김태일, 전일수
23회	천경호, 강홍철
24회	최병일, 한병철, 양재업, 은성기, 조병학, 이원길, 이영림
	김기준, 이법도, 심영철, 임무호, 조진성, 문숙희
25회	송창근, 김기환, 임철빈, 송태수
	문태화, 김완기, 김두수, 이영제, 김미희, 이수영
26회	김태원
	정기춘, 부성심, 손영상, 이순아, 이종양, 이근주
	김형남, 최중배, 정필련
27회	윤영한, 박수길, 양건모, 이원일
28회	이병수, 이석원, 이혁빈, 강철순, 김광선, 남공용, 양창국
29회	전영빈, 한규인, 김중선, 장우성, 박준화, 김은진, 이상원
30회	배영숙, 손은실, 강승역, 김상의, 조미숙, 고은숙, 강현주
	김진, 광필선, 서정봉, 김선경, 라미숙
31회	심명섭, 오세정, 유영숙, 김하형
32회	안광영, 이명선, 윤준호, 김광복, 안승희, 김형기
33회	윤종배, 최상집, 이종탁, 박해석
34회	김영미, 김중국, 이선우, 신수민, 박상권, 이준
35회	정민식, 김성훈, 김진, 양정희
36회	장문장, 임성호, 이태강, 유복진
37회	박정면, 전상인
39회	박근철
40회	김승안, 심소영, 전창학
41회	김소연, 이호섭, 이은경, 김정민
42회	이창경
44회	이승준
46회	육성엽
47회	이승민, 고연아
49회	한병훈
50회	정원희, 임형균
51회	김준호, 장진
52회	허장현, 박술기

회원 경조 소식



11월 22일	김윤국(14회)	동문	자녀결혼
1월 16일	박찬희(11회)	동문	자녀결혼
2월 21일	전영표(14회)	동문	자녀결혼
3월 10일	정도연(14회)	동문	자녀결혼
4월 24일	이문규(2회)	동문	자녀결혼
5월 12일	김명섭(5회)	동문	자녀결혼



11월 8일	최두주(25회)	동문	조모상
11월 10일	현수홍(14회)	동문	빙모상
11월 26일	김하형(31회)	교수	형제상
12월 16일	임정한(21회)	동문	시부상
12월 17일	부성심(26회)	동문	시부상
12월 31일	박영찬(12회)	동문	모친상
1월 12일	정찬현(20회)	동문	부친상
1월 23일	최종묵(3회)	동문	자녀상
1월 25일	김규수(30회)	동문	부친상
1월 25일	최옥출(11회)	동문	부친상
2월 17일	김기환(24회)	동문	부친상
2월 23일	김길수(2회)	동문	별세
2월 24일	이규삼(24회)	동문	부친상
3월 10일	이도악(23회)	교수	빙부상
3월 24일	염정록	교수	빙부상
3월 25일	김형근(22회)	동문	별세
4월 14일	김동학(21회)	동문	빙모상

장학금 수여식



2010년도 1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본동문회	700,000	제약학	20072707	김혜린	4
	700,000	약학	20072727	성은지	4
	700,000	약학	20072749	이동은	4
	700,000	약학	20072777	조사라	4
	700,000	약학	20072698	김준기	4
	700,000	제약학	20082733	박경우	3
	700,000	약학	20082741	배주현	3
	700,000	약학	20082793	전인혜	3
	700,000	제약학	20082717	김종민	3
	700,000	약학	20082767	윤나리	3
	700,000	약학	20082778	이예슬	3
	700,000	약학	20082787	장아랑	3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성명	학년
본동문회	700,000	약학	20082789	장유정	3
	700,000	제약학	20062683	김종훈	3
	700,000	약학	20062671	김병선	3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	20072770	장희만	4
안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82734	박광준	3
여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72722	배윤경	4
	500,000	약학	20082791	장재영	3
약제반동문회	1,500,000	제약학	20072775	정재한	4
나사모동문회	1,000,000	약학	20075414	김미진	4
	500,000	제약학	20072767	장범현	4
한미약품(주)	4,659,000				
합 계 : 20,159,000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소중히 하라. 완성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뛰어난 것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며, 흔한 것은 그 가치가 감소된다. 거인들은 대부분 진짜 난쟁이 들이다. 외적인 것만 보면 결코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뇌는 그들이 도처에 있으려 하다보니 사실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데에 있다. 반대로 특출한 것은 내면에서 솟아난다. 그 본질이 고귀한 것이면 이는 능히 영웅적인 것이다. 세상을 보는 지혜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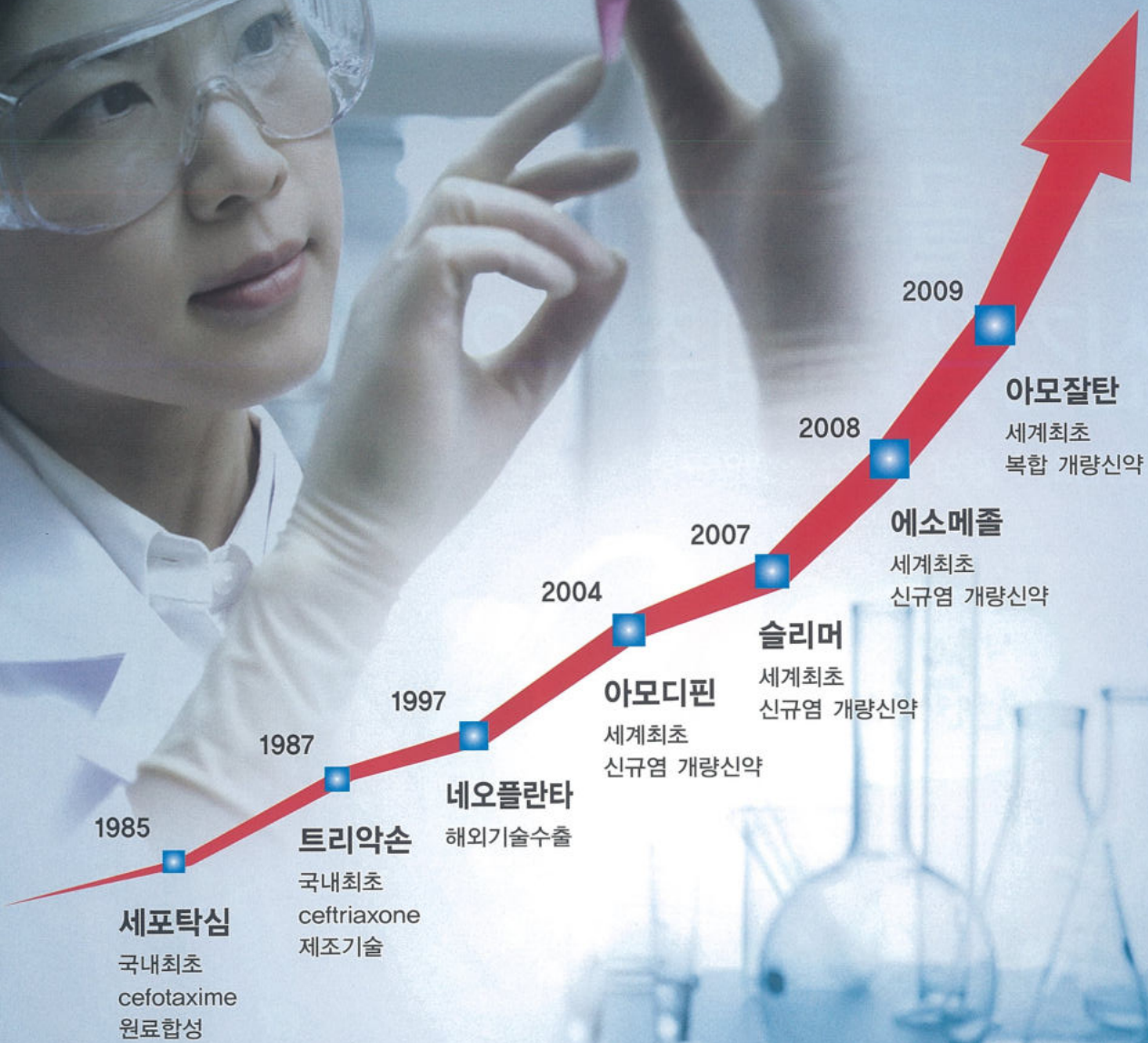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6월을 눈앞에 두고도 새벽녘 추위에 움칠 놀라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우리라고 피해 갈소냐마는 하기가 지진도 허리케인도 없는 나라에 오직 마음의 심란함만이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까지 합친 위력보다 더욱 더 크구나.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
철없는 4월 눈발에 아쉽게 떠나버린 봄날은 희망의 네잎 클로버를 두고 간 것을 알고나 있을까?

조양연(32회) 편집위원



“R&D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기흥 최첨단 연구센터

경기도 기흥에 2004년 개관한 최첨단 연구센터에서는 신약,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고난이도 퍼스트제네릭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한미약품이 미래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국적사에 기술수출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1989년 스위스 로슈사에 「세프트리악손」, 제법기술을 미화 6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였고,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마이크로에멀전」, 제제기술을 미화 6,300만달러에 기술수출 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획을 긋는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였다.

개량기술,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고난이도의 합성기술, 다양한 제제화 및 DDS 개발 등 최첨단의 개량기술 개발과 신규염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슬리머」, 「에소메졸」, 「아모잘탄」 등의 연이은 개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항암제 신약개발 집중화 전략(ORASCOVERY Technology)

경구용 항암제 오라솔과 오리테칸,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HM781-36B의 임상 시험, 다양한 신호전달 차단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 등으로 한미약품은 특화된 항암제 분야에 신약개발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성 단백질 기반기술 개발(LAPSCOVERY Technology)

새로운 재조합 캐리어를 활용한 지속성 단백질 의약품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단백질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써 한번의 투여로 수주 동안 충분히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LAPS-EPO, LAPS-GCSF, LAPS-Exendin 등 다수가 국내외 임상시험 중에 있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개량기술 및 개량신약 개발에서 얻은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홍삼 · 생약 성분 함유 티라노골드로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12가지 영양소 + 홍삼 + 생약 = 영양균형



식물성
천연색소 사용



홍삼함유 어린이 종합 영양제

티라노골드

췌어블정

영양이 쑥쑥, 체력이 쑥쑥! - 티라노 골드

- 성장발육에 필요한 10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 작약, 황기 생약 성분
- 아이들이 좋아하는 티라노 모양이 새겨진 정제
- 오렌지, 딸기, 포도 향과 식물성 천연색소 사용



120정

150원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신용의 상징·비율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1059-0800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노래연습도 해야하고, 꽃 관리도 해야하고,
애들도 돌봐야하고, 공연아이디어도 짜야 하고,
콘서트도 해야하고, 야구 감독도 해야하고...

피곤해 지겠는데?

하고 싶은게 많아질 때, 뽀콤·씨로 충전할 때

가수 활동에 공연 활동, 자선 활동까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김장훈씨도 체력이 뒷받침 되어 하고픈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게 많아질 땐 비타민 B와 C가 들어있는 뽀콤씨로 활력을 충전하세요.

뽀콤·씨

하루 2알
활력충전



• 뽀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유행병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